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8.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강한 AI 수요: 이제는 회수 속도가 중요

MSFT, AMZN, META 실적이 보여준 AI 투자 회수 가시성의 차이

- AI 인프라 업종의 투자 판단 기준은 자본지출 확대나 수혜 여부보다 투자 회수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AI가 클라우드와 광고 등 기존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격적인 자본지출 기조도 다시 확인했다. 강한 AI 수요와 초대형 플랫폼들의 자본지출 확대는 AI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이지만, 기업별 추가 반응이 엇갈렸다는 점은 시장참여자들이 AI 매출과 이익 기여도, 현금흐름 개선 여부까지 함께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한 수요를 확보하고 원가 상승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 세 기업 모두 AI가 기존 사업의 성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AI 사용량 증가가 Azure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수요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은 AI 워크로드가 GPU 사용에 그치지 않고 아마존의 CPU(Graviton),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AWS 서비스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메타는 AI 추천 모델과 광고 랭킹 개선을 통해 이용시간과 광고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세 기업은 수요 부족보다 서버, 데이터센터, 전력 등 공급부족을 제약요인으로 지적했다.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했다. AI 인프라 사이클이 단기간 꺾인다는 신호는 없었다.
- AI 투자 회수 강도는 기업별로 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기업 중 가장 강한 AI 투자 성과를 증명했다. Azure의 성장률은 43%로 이전 분기 대비 3%p 가속화됐고, 다음 분기 가이드선도 45% 수준을 제시했다. CPU와 GPU 활용 효율성, 신규 인프라 가동시간(Dock to live time) 등을 개선했다. 확보한 추가 용량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배치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Azure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계약 잔고는 6,780억 달러로 84% 증가해 매출 가시성도 확보했다.
- 코파일럿은 기대 단계에서 대규모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유료 좌석 전환(업셀링)은 3,000만 석을 넘어섰다. 분기 순증 규모는 약 1,000만 석으로 이전 분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AI 인프라를 Azure 매출로 수익화하는 동시에 코파일럿, 깃허브, 다이내믹스 등 애플리케이션 매출로 연결하고 있다. 코파일럿과 E5, E7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의 업셀링, 사용량 기반 과금 확대가 매출과 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잉여현금흐름은 줄었으나, 양호한 이익률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 감소는 회수 실패가 아니라 투자 선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아마존도 AWS를 중심으로 AI 투자 회수가 확인됐다. AI 수요는 GPU 사용료에만 그치지 않고 아마존의 자체 Arm 기반 CPU인 Graviton,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AWS 서비스의 성장을 함께 견인했다. AWS 성장률은 36.7%로 18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일회성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제외해도 영업이익률은 약 38% 수준에 달했다. AWS 수주잔고는 4,96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320억 달러 증가했고, AI 사업과 자체 칩 사업은 각각 연환산 매출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Bedrock에서 3자 모델 매출을 인식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용량 최적화와 코어 AWS 성장도 높은 수익성에 기여했다.
- 아마존은 2026년 현금 자본지출 가이드선을 기존 2,000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고객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용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AWS 서버와 네트워크 투자의 손익분기점이 평균 3년 미만이고, AI 용량 계약은 대체로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경제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인프라 수익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초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메타는 AI가 광고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추천 및 광고 시스템에 LLM을 적용해 이용자 참여도와 광고 효율을 개선했다. 광고 노출과 단가는 각각 14%, 12% 증가했고, 광고 매출은 27% 늘었다. 인스타그램 이용시간과 광고 전환율, 클릭률 등도 향상됐다. AI가 소셜네트워크와 광고 플랫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와 진입장벽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메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보다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았다. 광고 본업에선 AI 효과가 확인됐지만 개인 에이전트, 모델 API, 기업용 에이전트, 컴퓨팅 판매(네오클라우드) 등 신규 AI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AI 인프라 투자와 감가상각비, AI 인력 비용, 제3자 클라우드 및 토큰 비용은 빠르게 늘며 분기 잉여현금흐름은 7.8억 달러에 그쳤다. 본업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 회수는 확인됐지만, 신규 AI 사업이 직접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 시장참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메타엔 실망감을 나타냈다(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 MSFT +15.5%, AMZN +15.3%, META -8%). AI 수요, 자본지출 규모 등보다 투자한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지가 핵심 평가 변수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투자 회수가 확인됐고, 아마존은 AWS 성장률과 마진, 수주잔고 등으로 투자 경제성을 증명했다. 메타는 광고 본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AI 매출과 현금흐름 회수 시점 불안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 시장의 관심은 AI 인프라 기업의 수주와 매출 성장에서 이익 및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실적은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신규 용량이 가동 직후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빅테크가 단기간에 자본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관건은 이 수요를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다. 점유율 확대 여력, 가격 결정력, 공급망 내 병목 지위를 갖춘 기업이 차별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산, 네트워킹 펌프스(NVDA, AMD, MRVL), 메모리 및 스토리지(MU, SNDK, WDC, STX) 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89.7	25,373.9	52,485.0	3,832.3	2,427.9
1W (%)	1.0	1.6	1.0	0.5	0.4

주) 7월 31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7월 27일~7월 31일) 리뷰: 초대형 클라우드 중심 상승

-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호실적을 발표한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강세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지수별 주간 수익률은 다우지수 +1%, S&P 500 +1%, 나스닥 종합지수 +1.6%다. 주간 수익률 기준 각각 4주, 3주, 3주 만에 상승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보합이었고,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6% 상승했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주간 가격 변동률은 +2.1%, -0.5%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비M7 ETF(XMAG)는 각각 +4.4%, -0.2%다.
-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미국의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 문구와 정책 가이드언스에 사실상 변화는 없었다. 베스 해택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인이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했다. 세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2%를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준의 FOMC 가이드언스 제공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다시 확인했다.
- 워시 연준의장이 FOMC 회의 횟수를 축소한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2026년 연간 일정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현재 연준은 연 8회의 정례 FOMC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축소가 워시 의장의 평소 기조와 부합할 수 있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반발할 여지가 있다. 회의를 축소한다고 해도 올해 남은 일정은 이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FOMC 회의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효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방향성이나 대처 등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 여지가 있다.
- GICs Level1 기준 상승 상위섹터는 경기소비재(+8.3%), 커뮤니케이션(+5.4%), 필수소비재(+1.1%), 금융(+1%) 등이다. 경기소비재는 테슬라 약세(-0.6%)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가의 큰 폭 상승(+17%)이 산업 수익률을 견인했다. 커뮤니케이션은 메타가 6.5% 급락했지만, 알파벳이 11.4% 상승한 덕분에 양호한 산업 수익률을 달성했다. 금융은 높은 금리 덕분에 좋아질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락 상위는 유틸리티(-4.2%), 부동산(-2.2%), 소재(-1.7%) 등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문제다.
-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높은 장기금리에 민감한 섹터다. 둘 다 부채가 많고, 현금흐름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유틸리티는 10년, 30년물 금리 상승이 불편하다. 발전소, 송전망, 배전망 등 건설에 막대한 차입이 필요하다. 투자비 회수 기간도 길어 할인율 상승에 민감하다. 배당주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 낮아진다.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규제 유틸리티는 높아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시차가 존재한다.
- 부동산 및 리츠의 경우 금리가 오르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진다(부동산 가치 = 순영업이익 / Cap Rate). 만기 도래 대출의 채용자 금리가 상승하고, 개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여지도 있다. 높은 이자비용은 부동산 거래량을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한다. LTV는 상승하고, 대출기관의 심사가 강화될 수도 있다.
- M7의 수익률은 마이크로소프트 +21.8%, 아마존 +17%, 알파벳 +11.4%, 테슬라 -0.6%, 엔비디아 -2.9%, 메타 -6.5%, 애플 -7.2% 등이다. 실적 발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AI 투자 회수 가시성을 보여줬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한 수요를 확인한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주 후반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이번 주(8월 3일~8월 7일) 프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고용지표, 기업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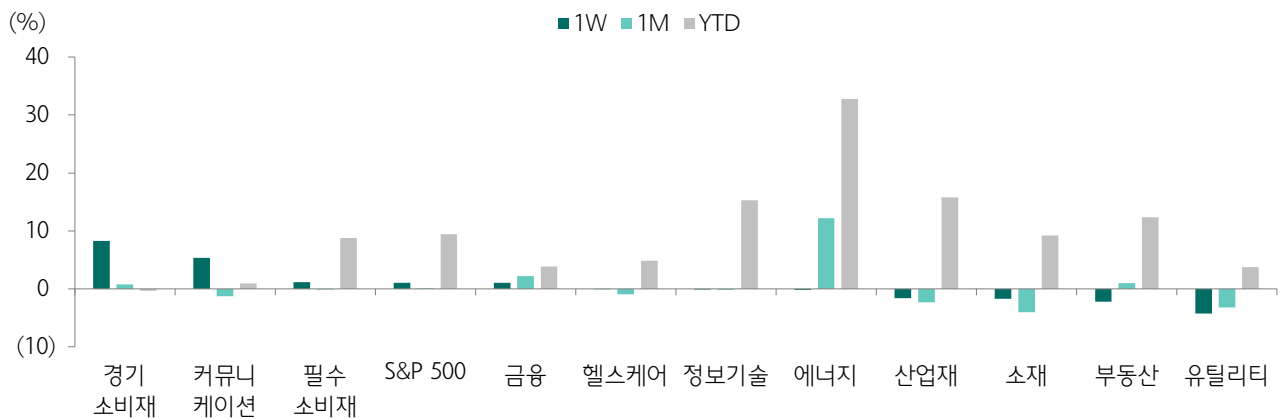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고용지표, 기업실적 등에 주목할 것이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로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자본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2%, 10년물 금리는 4.7%를 넘어선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 요구수익률 상승 등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시장참여자들의 AI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이 예상되지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과 고용지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주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압박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압력은 지속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X)를 통해 7월 31일 기준 상선 3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2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2척에 승선 검색을 실시해 호르무즈 봉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 팔란티어 실적 발표도 예정돼있다. 팔란티어의 FY 2Q26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8억 달러(가이던스 18억 달러), 매출총이익률 86.9%, 영업이익률 59.6%(가이던스 59.2~59.3%), EPS 0.34 달러, 잉여현금흐름 11억 달러 등이다. 사업부별 매출 컨센서스는 상업용 9억 달러(미국 7억 달러, 전 세계 2억 달러), 정부 9억 달러(미국 7억 달러, 전 세계 2억 달러) 등이다. FY 3Q26 컨센서스는 매출액 20억 달러(상업용 10억 달러, 정부 10억 달러), 매출총이익률 86.4%, 영업이익률 58.2%, EPS 0.37 달러 등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팔란티어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상업 매출이다. 미국 상업 매출은 팔란티어가 정부 특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반 기업용 AI 플랫폼 회사로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 상업 매출의 고속 성장이 계속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잔여 계약 가치의 증가가 중요하다. 신규 계약 가치의 증가 속도도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번 분기 실적이 강하더라도 향후 성장 여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도 있다. 스페이스X는 다음 분기 알파벳과의 계약을 강조할 여지가 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매도 물량에 주목할 것이다. 8월 6일 약 9억 3,000만 주가 매도 가능한 상태가 된다. 2027년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40억 주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참여자들은 AI 사업의 사업 구조와 수익모델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컴퓨팅 용량과 자본지출도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사다. 스페이스X는 상장신고서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다. 추가 고객 확보 여부와 추후 자금조달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AMD 실적에선 시장참여자들은 데이터센터 매출 가이던스에 주목할 것이다. CPU와 GPU 비중을 가늠하려 할 것이며, 공급이 원활한 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서버 CPU에선 시장 확대와 함께 점유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여지가 크다. AMD는 빠르게 서버 CPU 시장 점유율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 예상치를 가파르게 상승시킨 만큼 실제 주문과 매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텔로부터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는지도 중요하다. 지난 분기 인텔과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AMD는 출하량이 더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이익과 현금흐름 가이던스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현금흐름 소진을 걱정하고 있다. 팹리스 기업인 AMD의 매력에 부각될 여지가 있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3일 7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예상치 54.5, 이전치 53.2) / 7월 건설지출 MoM(예상치 0.3%, 이전치 0.1%) /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상치 54.2, 이전치 53.8), 4일 6월 미국 수입 및 수출 / 6월 JOLTS 구인이직건수(이전치 7,594,000 건) / 6월 공장주문 MoM(예상치 0.2%, 이전치 -1.3%), 5일 7월 S&P 글로벌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예상치 53.6, 이전치 53.6) / 7월 S&P 글로벌 종합 구매관리자지수(예상치 53.6, 이전치 53.6) / 7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예상치 54.4, 이전치 54) / EIA 주간 원유재고(이전치 -7,167,000 배럴), 6일 7월 첼린더 실업 지표 YoY(이전치 -4.5%)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06,000 건, 이전치 197,000 건), 7일 7월 비농업 고용지수(예상치 1,000,000 건, 이전치 57,000 건) / 7월 시간당 임금 MoM(예상치 0.3%, 이전치 0.3%)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3일 BRK / PLTR / VRTX / MAR / WMB / OKE / TKO / ON, 4일 SPCX / AMD / CAT / ANET / AMGN / MCD / GILD / BKNG / PFE / BP / SPOT / DUK / CMI / EMR / EEOG / TDG / AME / EA / ROK, 5일 LLY / NVO / SNDK / WDC / DIS / SHOP / UBER / APP / CVS / MCK / MELI / AXON / FLUT / CRCL / Z / JOBY, 6일 COP / PH / HWM / NET / DDOG / CEG / ABNB / LNG / KDP / AIG / KVUE / ZTS / RMD / TWLO / FISV / DKNK, 7일 VST / TTWO / PPL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7/31)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89.7	0.7	1.0	0.1	3.6	8.3	20.1	9.4
나스닥	미국	25,373.9	1.0	1.6	-1.8	1.0	9.1	22.9	9.2
다우	미국	52,485.0	0.5	1.0	-0.8	6.0	6.6	20.4	9.2
STOXX600	유럽	649.2	-0.1	0.7	-0.5	6.2	5.1	21.2	9.6
KOSPI	한국	6,595.5	17.9	-1.4	-18.5	-0.1	24.7	111.4	56.5
KOSDAQ	한국	719.8	11.6	-3.8	-17.1	-39.6	-37.1	-6.9	-22.2
상해종합지수	중국	3,832.3	0.7	0.5	-5.2	-6.8	-5.8	7.6	-3.4
심천종합지수	중국	2,427.9	2.3	0.4	-13.1	-12.5	-9.3	11.6	-4.1
항테크지수	홍콩	25,884.4	0.1	3.7	10.9	0.4	-3.5	5.6	1.0
TOPIX	일본	4,003.3	1.3	-0.2	-1.5	7.4	9.8	35.8	17.4
니케이 225	일본	64,362.0	4.0	-0.4	-7.7	8.1	17.6	57.8	27.9
니프티 50	인도	24,383.6	0.3	2.6	0.5	1.6	-5.2	-0.7	-6.7
Vietnam	베트남	1,735.8	-0.5	2.9	-6.8	-6.4	-4.3	16.1	-2.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7.3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경기소비재: 아마존의 AWS 매출 급성장으로 AI 투자 수익화 기대가 확인되며 주가 급등, 섹터 수익률 견인
- 커뮤니케이션: 메타 약세에도 알파벳 강세가 상쇄하며 섹터 전반 양호한 흐름 유지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유틸리티: 이란 분쟁 지속으로 국제금리가 연고점 수준까지 상승, 부채 부담과 배당 매력 약화로 유틸리티 전반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7/29	미 정부, 글로벌파운드리스에 CHIPS법 자금 3억 달러 지원 미 정부가 CHIPS법에 따라 글로벌파운드리스에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AI 데이터센터용 실리콘 포토닉스 R&D 강화가 목적으로, 핵심 목표는 공동패키징광학(CPO) 기술 개발. 현재 실리콘 포토닉스 공급망의 대부분이 TSMC 등 해외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
7/30	연준, 기준금리 3.50~3.75% 5연속 동결 연준이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 올해 들어 5차례 연속 동결. 다만 해맥·카슈카리·로건 3명이 0.25%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9대3으로 결정, 지난달 만장일치와 달리 이견이 확대.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는 2% 물가"라며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고 강조
7/30	美 30년물 국채 금리 5.21%,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연준의 5연속 금리 동결 결정 이후 30년물 국채 금리가 5.21%로 전장 대비 0.1%p 급등하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10년물도 4.67%로 0.07%p 상승. FOMC에서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반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4.24%로 소폭 하락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
7/30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1.5% 미 상무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1.5%로 1분기(+2.1%)보다 둔화하고 시장 예상치(+1.8%)도 하회했다고 발표. 개인소비(+3.2%)와 민간투자(+3.0%)가 성장을 지탱했으며, 특히 AI 인프라 관련 지출이 핵심 성장 동력. 미국 경제의 기초 수요를 나타내는 민간지출 증가율은 +3.9%로 202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초체력은 견조한 흐름 유지
7/30	미국 6월 PCE YoY +3.7% 미 상무부, 6월 헤드라인 PCE가 YoY +3.7%, MoM -0.1%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근원 PCE는 YoY +3.3%, MoM +0.1%로 예상치(MoM +0.2%)를 소폭 하회. 에너지 가격이 9.2% 급락하며 비내구재 물가를 -1.0%로 끌어내려 전체 하락을 주도. 미-이란 전쟁 이후 급등세를 이어온 PCE가 유가 하락을 반영하며 MoM 기준으로 처음 하락 전환. 실질 PCE는 MoM +0.4%로 소비는 견조한 흐름 유지
7/31	머스크, 11월 중간선거에 최소 1억 달러 투입 머스크가 2024년 대선 때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재가동해 중간선거에 최소 1억~1억2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알래스카·아이오와·미시간·오하이오 등 5개 주 상원 선거에 집중하며 하원 선거 지원도 검토 중
8/1	트럼프, 대이란 공습 중단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트루소소셜을 통해 이란 및 중동 우방국들로부터 합의 틀 마련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주말 예정이었던 대규모 공습 취소를 발표.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이스라엘도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8/1	애플, 시총 1위 탈환 나흘 만에 엔비디아에 반납 애플 주가가 31일 7.35% 급락한 308.91달러로 마감하며 시총이 4조5,400억 달러로 축소, 엔비디아(4조8,600억 달러)에 1위를 다시 내줌. 27일 사상 최고치(336.91달러)로 시총 1위를 탈환한 지 불과 나흘 만. 전날 실적 발표에서 7~9월 공급 제약으로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이드언스가 실망 매물을 촉발. AI 투자를 최소화한 점이 각광받아 주가가 올랐으나 AI발 메모리·반도체 공급난이 실적 전망 발목을 잡으며 하락 반전. 같은 날 알파벳·MS·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인프라 사업 호조로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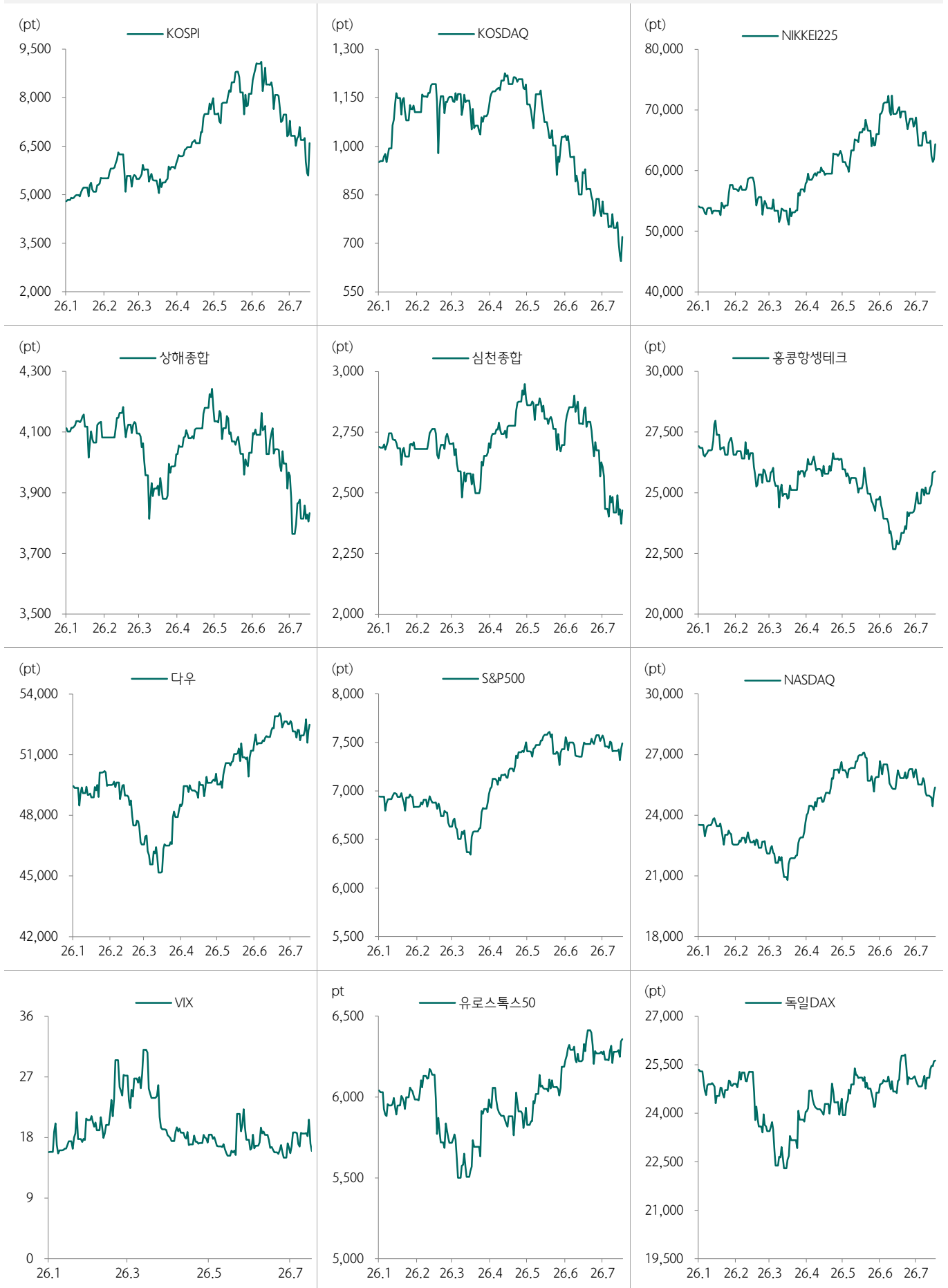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8월)

일	화	수	목	금
3	4	5	6	7
BRK PLTR VRTX MAR WMB OKE TKO ON	SPCX AMD CAT ANET AMGN MCD GILD BKNG PFE BP	LLY NVO SNDK WDC DIS SHOP UBER APP CVS CRCL	COP PH HWM NET DDOG CEG ABNB LNG	VST TTWO PPL
10	11	12	13	14
SPG RCLB STE AMTM	TDG LITE CAH SMC		AMAT ROST TPR	
17	18	19	20	21
	HD CRWW A	CSCO ADI TJX LOW TGT KEYS EL AMCR	WMT MRVL DE INTU WDAY DLTR	
24	25	26	27	28
PANW	JKHY	NVDA SNPS	ADSK DG ULTA BBY HRL LULU CPB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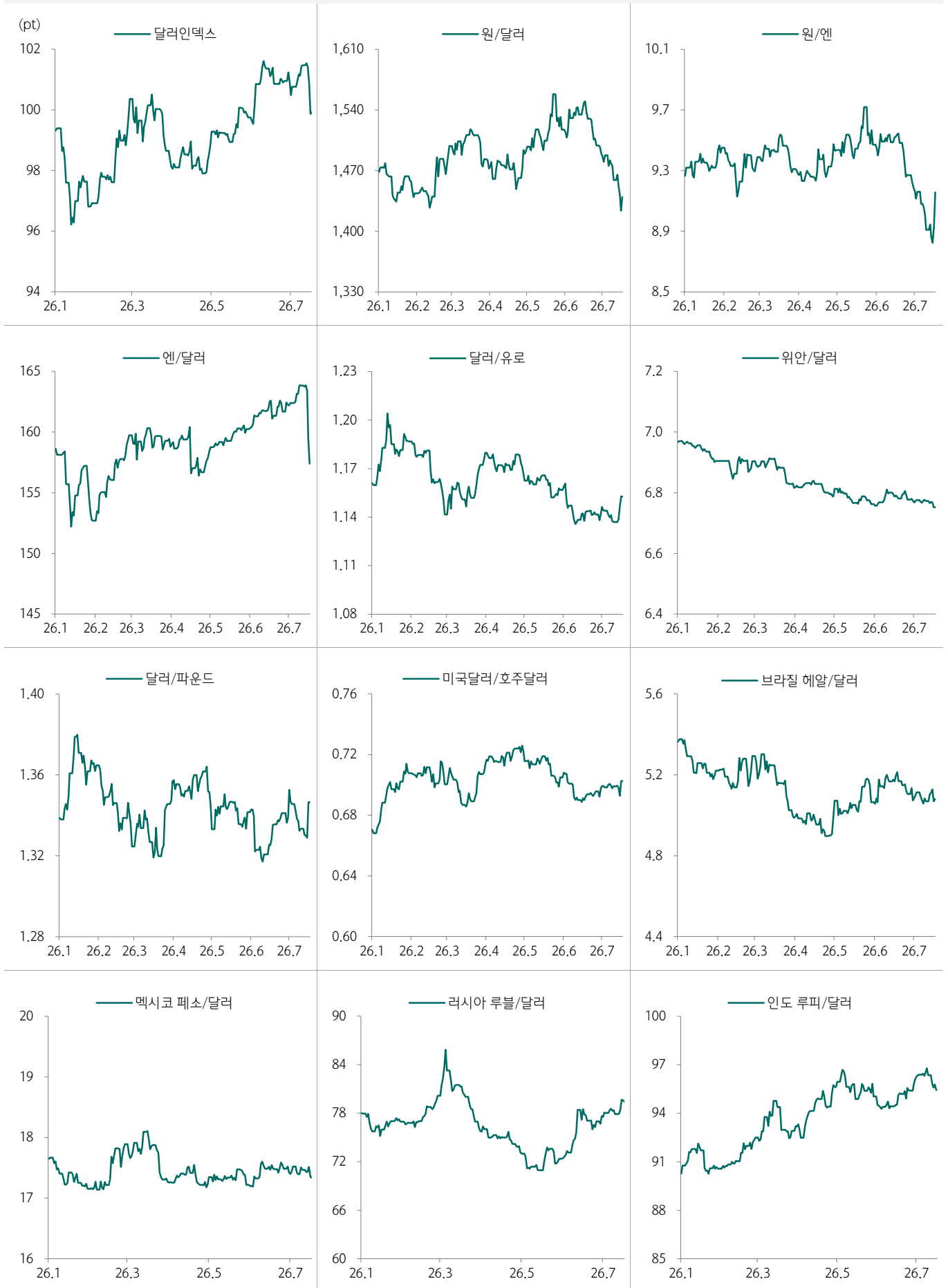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8/3(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예상 53.8, 이전 53.9)
8/4(화)	6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6월 수출/입 (이전 317.70B/395.30B)
8/5(수)	7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이전 98K) 7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예상 53.6, 이전 51.2) 7월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이전 54.0)
8/6(목)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8/7(금)	7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이전 0.3%) 7월 비농업고용지수 (이전 57k) 7월 실업률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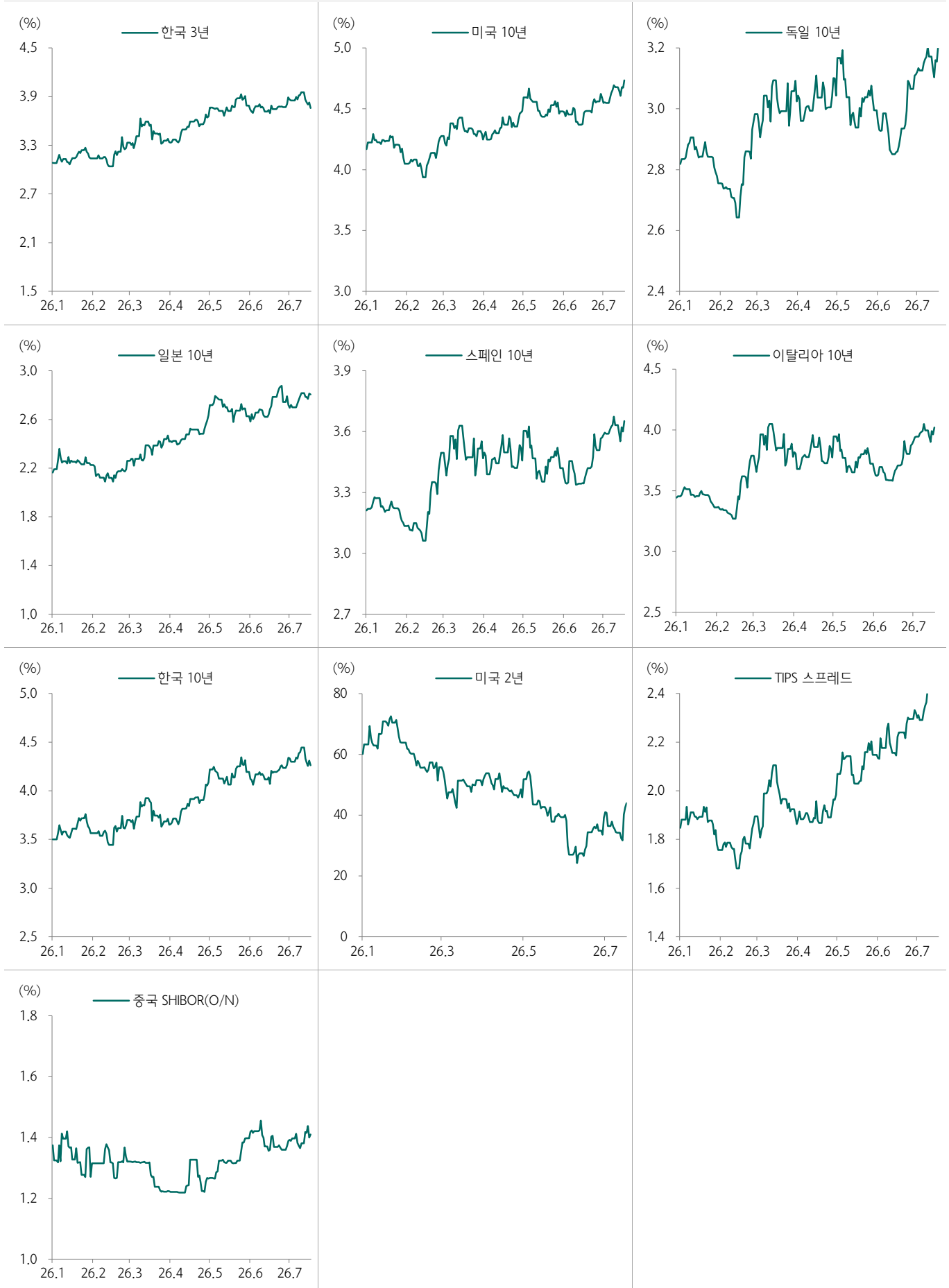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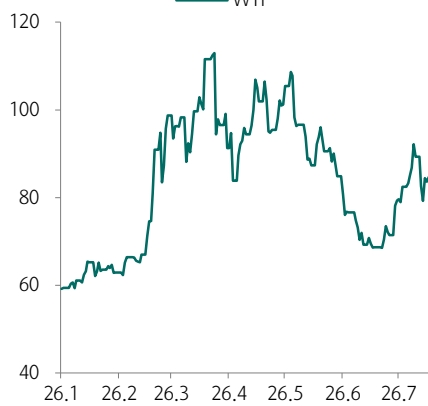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달러/배럴)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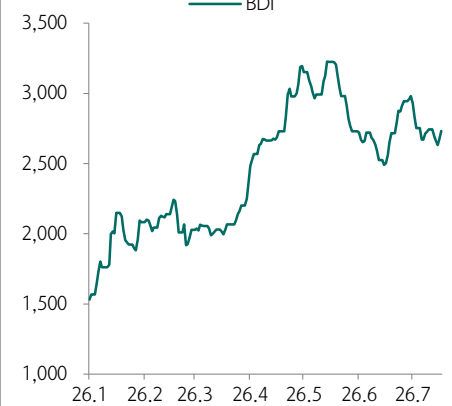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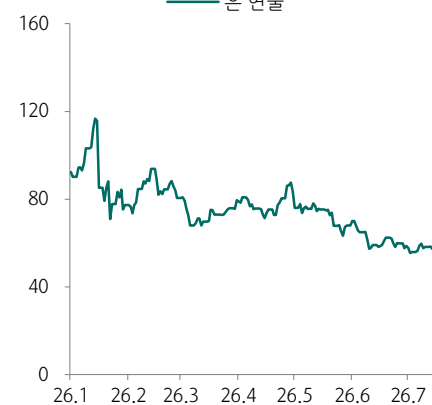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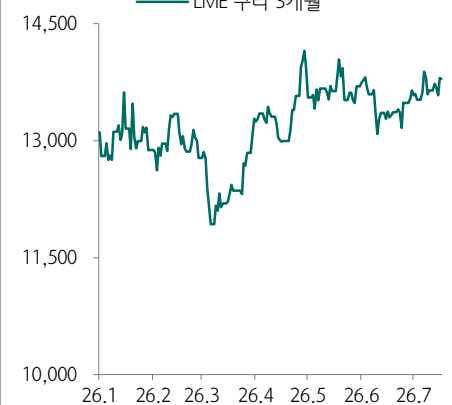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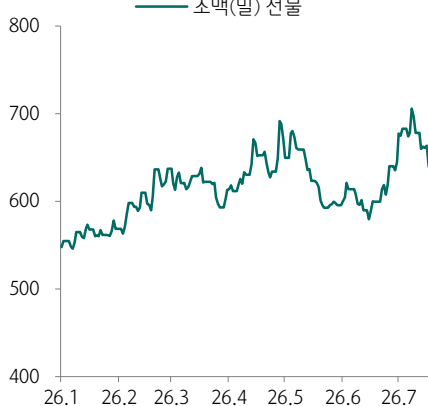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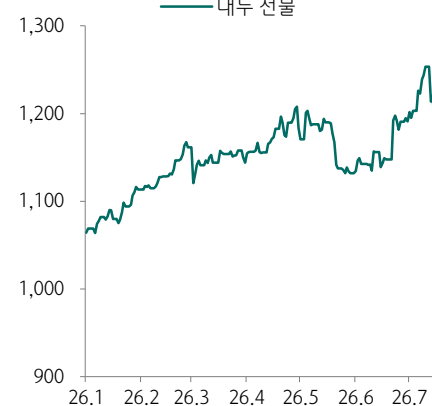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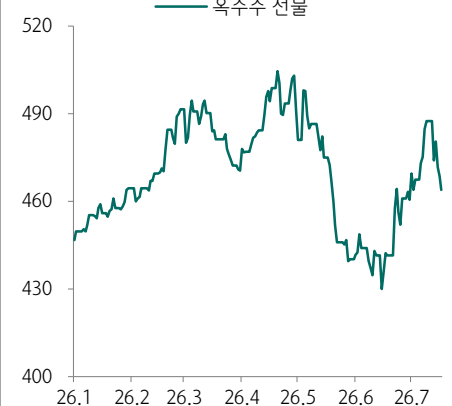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2026년 8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